

모토스코 호수 - 고대의 호수

모토스코 호수는 가장 깊은 곳의 수심이 120m 로, 이는 후지 5 호 중에서 두 번째로 깊은 사이코 호수의 거의 2 배에 달하는 깊이이며 나머지 세 호수와 비교하면 8 배나 됩니다. 사이코 호수와 마찬가지로 모토스코 호수의 명칭도 일설에 따르면 과거 이 일대에 펼쳐져 있던 호수인 세노우미에서 유래하여 ‘모토노세(원래의 세노우미)’가 변화한 것이라고 여겨집니다. 모토스코 호수가 비교적 이른 단계에 세노우미에서 분리된 것은 분명하지만 모토스코 호수, 사이코 호수, 쇼지코 호수의 수위가 같기 때문에 이들 세 호수는 지하에서 연결된 것으로 추정됩니다.

모토스코 호수 관광에 추천할 만한 것으로 유람선 ‘모구란’을 들 수 있습니다(계절에 따라 운항되므로 승선 시 확인 필요). 배의 이름인 ‘모구란’은 ‘잠수하지 않는다’라는 뜻으로 마치 잠수함과 같은 외관이지만 그 이름처럼 잠수는 하지 않습니다. 잠수는 하지 않지만 배 밑바닥에 수중 생물을 관찰할 수 있는 창문이 설치되어 있고 선내와 이야기할 수 있는 통신관이나 잠망경을 사용해 ‘잠수함 놀이’를 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어린이 고객에게도 인기 있는 배입니다.

국민적 풍경

후지 5 호 중 가장 서쪽에 위치한 모토스코 호수에서는 동력선의 사용이 금지되어 있어 자연 그대로의 바람과 파도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. 이렇게 조용하고 차분한 환경 덕분에 하이킹이나 캠핑을 즐기는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호수입니다. 동쪽 호안에는 카누, 윈드서핑보드, SUP 등 수상 레크리에이션 용품이나 캠핑 용품을 대여하는 몇몇 가게가 자리하고 있어서 도구를 지참하지 않아도 충분히 즐길 수 있습니다.

모토스코 호수에서는 후지산을 북동쪽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. 이 특징적인 경치에서는 대부분 인공 건조물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. 이 경치는 2004 년에 발행된 천 엔 지폐와 1984 년에 발행된 오천 엔 지폐에도 그려지며 매우 잘 알려진 경치 중 하나입니다. 이 경치의 도안은 일생을 후지산 촬영에 바친 오카다 고요(1895~1972)의 사진을 바탕으로 작성한 것입니다. 현재까지 일본 지폐에 그려진 자연 풍경은 후지산뿐입니다.